

사람과 자연의 조화 이곳은 '생태계 보고'

여행하기 좋은 6월, 자연생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고창 운곡람사르습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고창군은 운곡람사르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6월에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는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지닌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에 있는 운곡람사르습지는 습지를 개간해서 사용했던 계단식 논이 폐경작지로 3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자연적으로 산지 저층습지와 소택지 등의 습지원형으로 복원과정을 거쳐 생태가 살아났다.

생물다양성이 높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희귀종의 생태적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운곡람사르습지에는 법정 보호종인 수달, 황새, 삿, 담비를 포함한 총 86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고창 운곡습지는 2011년 3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며, 같은 해 4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아울러 2014년에는 환경부의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지질·생태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청정한 자연생태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힐링체험을 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인근에 세계유산 등재 고창고인돌유적과 고인돌박물관 탐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탐방객들을 위해 상주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가 함께 동행하며 습지의 역사를 들려주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군은 운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의와 함께 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라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의 소중함, 환경문제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월 1회 실시하는 어린이 습지학교는 지역 내 초등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월 2회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습지학교,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습지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관내학교 습지교육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습지 탐방객들 늘면서 고인돌유적 방문객 수 증가, 습지 프로그램 운영

또한 차별화된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연 생태안내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습지를 찾는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운곡람사르습지 주변 6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특산물들을 판매하여 지역소득을 올리며 람사르 습지에 대한 브랜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오베이폴 토요시장'이 봄장·가을장으로 나누어 열리고 있으며, 운곡람사르습지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정하기 위한 프라이드 캠페인도 함께 벌이고 있어 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가적

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 생물권보전사업소 황한규 소장은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강화 및 다양성 증진을 통해 세계적 내내 생태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운곡람사르습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6월 가볼만한 곳'으로는 고창운곡람사르습지, 인제 대암산 용늪, 태안 두웅습지, 무안 갯벌, 제주 1100 고지습지&동백동산 습지, 창녕 우포늪이 선정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과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계 최근의
자연생태도시, **고창군**